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2. 29.(수)

■ (정책 동향) 2021.12.29.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2년도 연초 무기질비료 차질 없이 공급 추진

- 지역농협별 계약물량을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
- 농협경제지주에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 점검·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4천 톤이며, 이 중 1월분 계약물량 144천 톤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지역농협의 요청 순서에 따라 1월 3일 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
 -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농협경제지주는 1월은 무기질비료 판매량(20년 17천 톤 내외)이 통상 적은 시기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등으로 겨울철 수요가 많거나 특이 수요가 있는 지역농협의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하여,
 -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지역농협의 동시다발적 입고 요청에 대비하여 농협경제지주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에서 지역농협별 재고량과 실사용 시기를 종합·고려하여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2. 29.(수)

■ (언론 동향) 2021.11.10. “농수축산신문” 보도

○ 위성곤 의원, “요소비료 부족,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요소비료와 관련해 겨울 농사 지역에 필요한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업용 요소 수급 동향에 대해 긴급 점검함과 동시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가당 비료 판매도 제한되고, 원자재가격도 지난 해에 비해 크게 상승해 농가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중동산 비료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만큼 기존의 ‘연간 계약단가 고정’ 계약에서 ‘분기별 계약단가 조정’ 계약으로 변경하는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수입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적기에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의 부담을 농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값싼 수입산에 의존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농업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한태 기자 >